

나의 COMPUTER 入門記

최 부 일

((주)오메가로직 회장)

때는 1960년 여름 4. 19혁명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아주 어수선한 때였다.

“너 일본에 가보지 않겠니?” 군에서 전역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궁리 저궁리 하고 있을때 느닷없는 어느 친구의 제의였다. 일본에 갈 수 있다는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시험을 치르고 나니 나로서는 지금도 행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당시 내무부 통계국의 촉탁(전산요원)으로 선발되어 컴퓨터 人生을 걷게 될줄이야!

그해 12월 난생 처음 플로펠라 비행기를 타고 일본땅에 떨어지니 그곳이 하네다 공항이었으며 곧바로 전세버스편으로 도착된 곳이 요코하마 였다.

이곳은 내가 1955년 군재직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귀국할때(船便으로) 잠시 머물던 곳이라 아주 생소한 곳이 아니였기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시내를 거닐어 보니 5년전에

생각했던 조그마한 항구도시가 아니라 활기넘치는 대도시로 변모하고 있음을 느낄수가 있었다.

IBM JAPAN이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이 해외연수에는 여자2명을 포함하여 26명. 20代와 30代가 뒤섞인 이 학생들. 해방된지 얼마되지 않은 이 시점에 더욱이 한국의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고 일본사람한테서 교육을 받다니! 오랫동안들어보는 일본말! 좀 이상한 느낌이 든 것은 나뿐이었을까!

교육 내용은 지금의 컴퓨터의 母體라 할 수 있는 PCS (Punch Card System)에 관한 것이었다. 키 펀치를 비롯한 分類機, 計算機, 會計機등 7~8종의 機器가 한 셋트로 구성되어 원시 데이터를 카드에 펀치한 다음 결과표를 作成해 내는 機器들의 기능과 사용방법을 익히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의 고생길(?)은 시작되었지만 여기서 한가지 부언해두고 싶은 것은 당시 일본의 민간기업들은 사무기계화를 위해 商品코드, 去來先코드 등은 물론 각종 장표의 표준화를 이룩하고 장기 경영계획의 수립과 실적검토의 수단으로서 이미 이 PCS를 利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後에 컴퓨터로 移行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러한 경험이 없는 환경에서 바로 業務電算化를 추진했던 70년대 우리나라 初創期 DP 매니저들은 얼마나 고생했을까.